

### 협회 사무실 이전

대한에이즈협회는 2월 3일 사무실을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이전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보건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유관단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색으로 관련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기대되어 진다. 새 사무실은 송현빌딩(조흥은행 당산동 지점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바뀐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57 송현빌딩 307호 우 150-038 TEL : 636-8060~1, 1525 FAX : 636-1526)

### 상임위원장 회의 개최

위원장 회의가 1월 11일 수요일 6시 신라호텔에서 있었다. 최강원·김모인 부회장, 김준명 운영위원장, 최영희 교육위원회장, 박정희 홍보위원회장, 김봉환 인권복지위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신임 회장 선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김대규 자문위원 위촉

대한결핵협회 김대규 부회장이 본 협회 자문위원으로 영입되었다. 일생을 보건단체에서 헌신해 오면서 쌓은 경험들이 협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이길여 고문 위촉



인천중앙길병원의 이길여 이사장이 본 협회 고문으로 영입되었다. 가천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이길여 고문은 최근 제3회 가천문화가족의 날 행사에서 耑堂 서정주 시인을 초청, '시와 문화생활'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약력 : 195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89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대한적십자사 중앙조직위원

한국성인병 예방협회 부회장

서울대 의과대학 동창회 부회장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 설립 이사장

미추홀 봉사단 창단(총재)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위임

## 이연숙 이사 위촉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연숙 회장이 본 협회 이사로 영입되었다.

약력 : 1967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현재 한국소비자연맹 이사  
 금강장학회 이사  
 재해대책협의회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지문위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강원용 고문**(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은 2월 2~3일 한일심포지움 '해방 50년, 패전 50년'을 주관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와 함께 김지하 시인이 심포지움에 초청되었다. 23일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발전연구원 주최로 '패러다임을 바꾸자-해방 50주년을 즈음하여'

는 주제로 연설했다

**김수환 고문**(추기경)은 1월 9일부터 19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대회와 아시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일본 교베와 오사카를 방문하여 민단과 파괴된 성당 및 수용시설을 방문하고 위로했으며 한국인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영덕 고문**(前 국무총리)은 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흥진빌딩 6층 강당에서 재단법인 '청소년 대회의 광장'(원장 朴性沐 서울대학교 교수)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청소년 대회의 광장'은 93년 2월 문화체육부 산하에 설립된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으로 청소년들의 학습, 진학, 이성관계 등에 관한 고민상담, 전문상담원 연수 교육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한빈 고문**(공선협 대표, KAIST 이사장)은 자유지성3백인회 공동대표로서 1월 26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한국의 세계화와 인류의 세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사는 金鏞炫 세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정희 이사**(前 서울 YWCA회장)은 91년 2월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서울 YWCA회장 임기를 마치고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서울 YWCA 사회문제부 위원장과 서울 YWCA 명동본관 신축 건축기성회 회장으로 위촉되었다.

## AIDS 예방 및 퇴치에 관한 광고

협회는 광고대행사 (주) 금강기획과 함께 주간지 <스타체널> 2월 21일자에 지면 광고를 실었다. AIDS의 예방과 퇴치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이 광고의 카피 내용은 다음과 같다. "No AIDS. Yes Condomo! 에이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性)생활로 다함께 에이즈를 몰아냅시다."

